

2010년 4월 12일 보낸 편지입니다.(1,236조회)

휴(休)  
休

나도 휴식을 취하고 싶다.  
私も休息をとりたい

내 삶에 재충전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私の人生に再充電の必要性が感じられる

쫓기듯 살아온 지난 세월에 미안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  
追われるように生きてきた、過ぎ去った歳月に申し訳ない。温かいコーヒーを1杯

마시며 한나절 여유를 가져보는 것, 어디론가 여행을  
飲みながら半日余裕を持ってみることに、どこかに旅行に

떠나보는 것, 어느 것이든 좋겠다. 그래야 생동감이  
行ってみること、いずれもいいですね。そうしてこそ、生動感が

되살아날 것이고, 그래야 나의 봄을 다시 만들 수  
よみがえるはずで、そうしてこそ、私の春をもう一度つくるのが

있을 것이다. 휴(休)! 한자 '休'자의 모습처럼  
できるだろう。休！漢字'休'の字の姿ように

나도 나무에 기대서서 며칠만이라도  
私も、木にもたれて何日かだけでも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  
自然の中で休息をとりたい

- 홍미숙의《희망이 행복에게》중에서 -  
- ホン・ミソクの<希望が幸福に>より -

\* 어느 유명 골프선수가 슬럼프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 ある有名なゴルフ選手がスランプのときにこの言葉を言いました。

“아버지는 나에게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셨지만  
”父は、私に運動する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が

휴식하는 법은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休息する方法は教えてくれませんでした”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高い山に登る人であればあるほど

휴식이 필요합니다.  
休息が必要です

쉬지 않고 오르기만 하면  
休まず登るだけなら

어느 순간 갑자기 강제로 멈춰서게 됩니다.  
ある瞬間、突然強制的に立ち止まるようになります

쉬어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休んでこそ、さらに長く、さらに遠く行くことができます。

취:-하다 [取-]

<1> [타동사·여 불규칙 활용] 捨てずに取り上げる。

<2> [타동사·여 불규칙 활용] ある態度を取ったり行動したりする。

재충전 再充電

쫓기다

[자동사] ‘쫓다’의受動。

<1> [자동사] 追われる;追いかける。

한-나절

[명사] 約半日;昼の半分。

생동 [生動]

[명사·하다형 자동사] 生動。

<1> [명사·하다형 자동사] 生きて活発に動くこと。

강:제 [強制]

[명사·하다형 타동사] 強制;強要;無理強い;むりやりにさせること。

2010년 4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4,594조회)

내 안의 '아이'  
私の中の'子供'

문득 내 마음 안에 있는  
ふと私の心の中にある

상처 입은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傷ついた子供がいとおしく感じられる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독이자  
その子供をいとおしい視線で、叩いて

어느새 보채던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든다.  
いつのまか駄々をこねた子供が、すやすや眠っている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その子供に、必要なことは他人の愛ではなく

바로 나 자신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내가 좀더  
まさに私自身の愛だったろう。私がもうすこし

그 아이에게 너그러워진다면 그 아이는  
その子供に、寛大になれば、その子供は

멈추었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立ち止まっていた成長を続けていくでしょう。

- 김혜남의《어른으로 산다는 것》중에서 -  
- キム・ヘナムの<大人で生きること>より -

\* 내 안의 '아이'가 아직도 보채고 있나요?  
\* 私の中の'子供'が今も駄々をこねていますか?

저 먼 옛날의 상처 때문에 아직도 울고 있나요?  
あの、遠い昔の傷のせいで、今も泣いていますか?

이제는 더 보채지 않게 사랑의 빛을 보내야 합니다.  
いまは、駄々をこねないように愛の光を送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는 아이에서 웃는 아이로, 상처받은 아이에서  
泣く子供から笑う子供に、傷を受けた子供から

상처를 이겨낸 아이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傷を勝ち抜ける子供に、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잘 자라나야  
私の中にいる子供をよく育ててこそ

나도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私もよく成長することができます。

문득  
[부사] (考えや感じなどが)突然起こるさま:ふと;はっと;ひょいと。  
다독-다독

[부사·하다형 타동사] 軽くたくさま。

어느-새

[부사] いつのまにか;もはや;もう。

보채다

[자동사] むずかる;ねだる;だだをこねる。

새근-새근

<1> [부사] <하다형 자동사>はあはあ;あえぎあえぎ。

<2> [부사] <하다형 자동사>すやすや。

2010년 4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1,307조회)

'지금, 여기'  
'いま、ここ'

네가 꿈을 꾸지 않는 한,  
君が夢を見ていないかぎり

꿈은 절대 시작되지 않는단다.  
夢は絶対に始まらない

언제나 출발은 바로 '지금, 여기'야.  
いつも出発は、まさに'いま、ここ'だ

때가 무르익으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하고  
時が熟せば、そうできる条件がそろえば、といて

미루다 보면, 어느새 현실에 파묻혀 소망을 잃어버리지,  
延期すれば、いつの間にか現実に埋もれて、願いを忘れてしまう

그러므로 무언가 '되기(be)' 위해서는 반드시  
それゆえ、何か'する(be)'ために、必ず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do)'만 해."  
今この瞬間に何かを'しなければ(do)'ならない

-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의《Ping!》중에서 -  
- スチュアート・A. ゴールドの<Ping!>より -

\* 지금 있는 자리가 최선의 자리입니다.  
\* 今いるところが最善の場所です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없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今この瞬間が、またとない祝福の時間です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지금, 여기'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そのどんな条件と環境も'いま、ここ'よりよく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주어진 조건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与えられた条件をありがたく受け入れて、その土台の上で

새롭게 시작할 때 길은 열립니다.  
新しく始めるとき、道は開かれます。

'지금, 여기'에서부터입니다.  
'今、ここ'から始まります。

무르-익다

<1> [자동사] (果物や穀物などが)よく熟す;熟れる;よく実る;爛熟する。

<2> [자동사] (事・時機などが)熟す;頃合いになる;成熟する。

갖추다

[타동사] (物を)備える;整える;そろえる;取りそろえ

미루다

<1> [타동사] 延期する;延ばす;持ち越す;後回しにする。

<2> [타동사] (責任・仕事などを)人に押しつける;人のせいにする;転嫁する。

20100414.txt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Stuart Avery Gold)

2010년 4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1,089조회)

'어쩌면 좋아'  
'まあ、いいか'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朝、家を出て

막 피기 시작하는 개나리꽃을 보았습니다.  
まさに、咲きはじめている連翹の花を見ました。

"어, 개나리 피었네!" 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あ、連翹がさいてる!"という声を出しながら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혼자 웃었습니다.  
気分がよかったです。気分がよくて一人笑いました。

그러면서 '어쩌면 좋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それとともに、'まあ、いいか'という思いが浮かびました。

개나리꽃이 피었다고 뭘 어찌해야 되는 것도  
連翹の花が咲いたとしても、何かをどうにかしなければならぬことも

아닌데, 그냥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ないのに、ただどうすればいいのか分からないまま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胸がときめきました。

- 도종환의《마음의 침표》중에서 -  
- ド・ジョンフアンの<心の終止符>より -

\* 꽃을 보면 그냥 좋습니다.  
\* 花を見れば、ただすばらしいです。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꽃을 보고 설레임이 없다면  
豊かに咲いた連翹の花を見て、ときめきがなければ

자기 마음밭이 말라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自分の氣立てががかれているか、いないか振り返って欲しいです

그런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입니다.  
しかし、花よりさらに美しいことが人です。

사시사철 온세상에 늘 피어있는 사람꽃!  
四六時中、総ての世の中にずっと咲いている人の花!

그 사람꽃을 볼 때마다 '어쩌면 좋아!'  
その人の花を見るたびに、'まあいいか!'

기분 좋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気分よく笑ってください。

어쩌면1  
[부사] '어찌하면'의 縮約形。  
<1> [부사] どうすれば、どのようにすれば。

설레

[의존명사] さわぎまわる動作;大はしゃぎ。

심:-표 [一標]

[명사] 休止符。

<1> [명사] 文章符号のひとつ。

흐드러-지다

<1> [형용사] (우라야ましいほど)見事だ;見栄えがする;豊かだ。

<2> [형용사] ⇒흐무러지다

마음-밭

<1> [명사] 仏教やプロテスタントで「心」や「精神」の意味で用いられる語。

<2> [명사] 心根;気だて。

사시사철 四六時中



2010년 4월 16일 보낸 편지입니다.(1,501조회)

인연  
因縁

생에 크고 작은 인연이란 따로 없다.  
生に因縁の大小というのではない

우리가 얼마나 크고 작게 느끼는가에  
私たちがどれだけ大きく、小さいように感じるかによって

모든 인연은 그 무게와 질감, 부피와 색채가 변할 것이다.  
総ての因縁は、その重さと質感、容積と、色取りが変わるだろう

운명이 그러하듯 인연의 크고 작음 또한 우리들의  
運命がそうであるように、因縁の大小も、私たちの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닐까?  
決心にか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 최인호의《인연》중에서 -  
- チェ・イノの〈因縁〉より -

\* 스치듯 맺은 작은 인연이 평생 이어지는가 하면  
\* 通り過ぎるように、結んだ、小さな因縁が一生つながれば

오래 지속된 큰 인연이 사실은 악연인 경우도 있습니다.  
長く持続された大きな因縁が、実際は悪縁である場合もあります

인연이란 삶의 보너스와도 같은 선물입니다.  
因縁とは人生のボーナスとも似たプレゼントです。

얼마나 잘 가꾸고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  
どれだけよく、育てて、手入れをしていくかによって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育ったり、かれたりします。

빛이 되기도 하고 빛을 가리는  
光になったり、光を覆う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影になったりします。

색채 [色彩]  
[명사] 色彩。  
<1> [명사] 色;いろどり。

스치다  
<1> [자동사] すれすれに通り過ぎる;かする;触れる;擦れる。  
<2> [자동사] (考え・視線などが)かすめる;よぎる。

이어-지다  
[자동사] 繋がる;続く。

가꾸다  
<1> [타동사] (植物などを)栽培する;(手をかけて)育てる。  
<2> [타동사] 手入れをする。

다듬다

20100416.txt

<1> [타동사] (身なりなどを)整える;きちんとそろえる;手入れする。

<2> [타동사] (文章などを)練る;推敲する。

가리다2

[타동사] 覆う;遮る;隠す。

시들다

<1> [자동사] (草花が)しおれる;しぼむ;枯れる。

<2> [자동사] (体力が)弱る;元気が無くなる。

2010년 4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423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조한나눔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ジョ・ハンナ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나무처럼  
木のように

사람도 나무처럼  
人も木のように

일년에 한번씩 죽음같은 긴 잠을 자다가  
一年に1回くらいは、死ぬほど長く眠って

깨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目覚めたらいいと思った

그렇게 깨어나 연둣빛 새 이파리와  
そんなふうに目覚めて、薄緑の新しい葉と

분홍빛 꽃들을 피우며 처음부터  
薄紅の花を咲かせながら、最初から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았다.  
また、はじめればいいと思った。

- 공지영의《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중에서 -  
- コン・ジョンの<私たちの幸せな時間>より -

\*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生きていけば、意味のない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될 때가 있습니다.  
悲しみと苦痛の時間を経験することになるところがあります

그때는 사람도 나무처럼 죽음같은 긴 잠을 자다가  
そのときは、人も木のように死ぬほど長く眠って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봄에 옷을 갈아입는 나무처럼  
目覚めるのがよい。そして、新しい春に服を着替える木のように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またはじめたらいいです。そんな思いを一人しています。

좋은 글 주신 조한나눔께  
いい文章を書いてくださったパク・ウン미さま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연:뚫-빛 [軟豆-]  
[명사] ⇒ 연두(軟豆)

연:두 [軟豆]

[명사] 薄緑;早緑。

이파리

[명사] 『식물』草木の葉。[동의어]잎사귀

분:홍 [粉紅]

[명사] ‘분홍빛’의縮約形。

분:홍-빛 [粉紅-]

[명사] 桃色;薄紅;ピンク。

뜻-하다

<1> {타동사·여 불규칙활용} 意味する。

<2> {타동사·여 불규칙활용} (ある事を)志す;もくろむ;意図する;考える。